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2년 12월 7일(수) 총 2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실	담당자	• 조직관리팀장 안인호 ☎440-2151 • 담당자 원윤호 ☎440-2152	
	자치행정과	담당자	• 행정체제개편팀장 김예은 ☎440-3301 • 담당자 박은혜 ☎440-330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서해5도 업무 총괄할 ‘서해5도 특별지원단’ 만든다
- 각 부처별 서해5도 관련 업무 한 곳에서 대응, 주민 지원방안도 강화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내년 2월 시행할 조직개편에 서해5도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총괄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인 ‘서해5도 특별지원단(TF)’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서해5도 지원 강화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유정복 시장은 지난 10월 16일 연평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서해5도를 특별행정구역으로 격상시키고 특단의 행정·재정·안보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서해5도 주민의 정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행정(관리)구역’ 지정 근거와 각종 행·재정적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부처 등에 건의하고 있다. 또, 서해5도 주민에게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 중이다.

시는 서해5도 관련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촘촘히 챙기기 위해 한 곳에서 총괄 대응할 수 있도록 전담 조직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서해5도 특별지원단(TF)’에서는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향상과 행정·재정·안보 분야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현재 시의 여러 부서에 나뉘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서해5도 관련 업무를 ‘서해5도 특별지원단(TF)’에서 총괄해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시장은 “접경지역인 서해5도는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인 만큼 특별한 관리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며, “서해5도 업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을 만들어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